

# 포장산업, 전 산업계 리드 업종으로 자리매김 하길



윤 영 옥

(사)한국포장협회 회장

존경하는 포장협회 회원사 및 포장인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희망을 잉태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해의 아쉬움과 못다 이룬 꿈을 새로운 각오와 참신한 기획으로 강력히 추진하시어 모든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희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세계 경제가 불황의 터널에서 방황하다가 겨우 바닥에서 벗어나면서 수출은 조금씩 회복되었으나 내수는 제자리 걸음으로 부진한 상태에서 모든 원, 부자재의 가격이 급등하고 물량 또한 원활치 못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임가공 업체들에게는 원가와 수급면에서 크나큰 고통을 안겨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세계 경제가 회복될수록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은 새해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므로 관련 업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상생의 지혜로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예전과 다르게 가격의 오름세가 계속 진행되면서 최종 소비자인 유저 측에게 가격 인상 요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며 그나마도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대량의 회사들이 최악의 상태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트렌드에 발맞추어 기존 제품에서 벗어나 기존 공정을 자동화 내지는 새로운 기술로 개선하여ロス와 준비시간을 줄이는 등 원가를 낮추는데 주력하고 또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고부가가치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미래산업으로 육성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 포장인들은 모든 제품에 꼭 필요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그 가치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냉철히 생각해 보고 우리 스스로가 포장산업을 미래 발전 사업으로 인식되도록 고 기술을 접목시키고 자연친화적인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여 산업계를 리드할 수 있는 업종이 되도록 불철주야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2011년 신묘년에는 여러분들의 회사가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하며 또한 포장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신의 은총으로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우리들의 포장산업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전국 포장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포장인, 관련기관 종사자,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대표님, 신묘년(辛卯年) 새해를 맞아 가정의 축복과 함께 모든 일이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내 포장산업이 뚜렷한 산업의 한 장르로 인정받고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포장산업 근대화를 위해 온 몸을 던진 그 실질적인 태동기는 정부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1967~1971)이 시작될 무렵이라고 생각됩니다. 타 선진국에 비해 40여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적 배경이지만 당시 급속한 국가경제 성장과 맥을 같이하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의 10대 무역 대국에 걸맞는 포장산업 강국이란 이미지를 세계 속에 각인시켰습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자원 빈국이란 핸디캡 속에서도 오늘에 이른 것은 우리 포장인들이 그간에 쏟아 부은 피와 땀, 열정과 노력, 사명감 등이 어우러진 결실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우리 포장인들이 힘들게 구축해 놓은 공적들이 어디서부터인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한 포장제품의 품질보다는 가격 위주의 경쟁, 유저들이 물성에 맞는 제품 구매 방식보다 전문대행사에 위탁 구매, 공생한다는 의식의 전환 없이 우선 납품을 위주로 한 동종 업계의 이기심, “원가절감”이란 교과서적인 명분으로 포장재 가격 인하 압력을 요구하는 대형 유저들의 횡포 등이 전 포장산업에 만연되어 있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의 포장인 여러분!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포장산업은 모든 상품의 유통에 핵심적인 요소로써 근대 사회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임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여 이제부터라도 우리 포장인들이 이룩해 놓은 우리들의 포장산업을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이를 굳건히 지켜 나가야겠다는 의지가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면 아직은 비관보다는 희망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 새해는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한 용 교

(사)한국포장협회 명예회장

# 패키징 업계 기술 개발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최 경 환

지식경제부 장관

친애하는 패키징 업계 관계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경인년(庚寅年)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신묘년(辛卯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패키징 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신 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는 우리 경제에 참으로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G20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나라가 과거 주변국가로서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계 경제질서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주도국으로 도약한 역사적인 계기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패키징 산업도 단순 포장에서 벗어나 제품의 가치를 몇 배로 증대시키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패키징 산업은 제조업 전반의 광범위한 수요를 바탕으로 약 20조원('09년 기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최근 바이오, 나노, IT기술 등 첨단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그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패키징은 고객과 상품의 접점이라는 점에서 마케팅 수단으로써 그 역할이 커지고 있고, 친환경이 강조되는 최근의 경제적 추세와 맞물려 지속가능한(sustainable)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패키징 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기술적 열위에 있고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인력공급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패키징 업계의 상호협력과 기술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정부도 패키징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공급 역량을 확충하고, 국제협력 강화, 해외 진출 지원, 패키징 인식 제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패키징 선진국 도약을 위한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지식경제부는 음지에서 고군분투하시는 패키징 업계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일에 늘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 국내 포장산업 내실화 기대

2010년 경인년을 뒤로하고, 2010년 신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의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2010년은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감되어 역사적 성과를 이루어 내는 등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희망을 준 한해였습니다.

우리 식약청도 지난 한해 낙지·문어의 카드뮴 검출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식품 안전관련 사건·사고에 대응하면서 모니터링 결과, 노출량 위해평가 등의 과학적인 근거자료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유해물질 기준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기구 및 용기·포장 부분에 있어서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합성수지제 38종에 대해 제조시 불순물로 혼입될 우려가 있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유해중금속에 대한 규격 신설하는 등 EU 수준으로 지속적인 안전기준을 신설·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용기포장 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 막연한 불안해소를 위하여 「금속제 냄비 등 주방기구」, 「유리제(크리스탈 유리 포함) 주방기구」 등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였습니다.

충북 오송시대가 열리는 2011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밝아오는 새해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많은 노력들이 목표한 대로 성취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국내 포장산업이 그간의 눈부신 발전만큼이나 더욱 내실화되어 전국포장관련 업계 및 단체, 학계 모두 한층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포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수고해 주신 월간 『포장계』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이 영 자

식약청 차기물기준과 과장

# 포장기술인 업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김 영 호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회장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포장기술인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드리며 계속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임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근래의 포장개발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개선에 관련된 폐기물, 수자원, 대기관리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인 관리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2. 식품, 의약품, 화장품의 포장이 포장의 주요기능을 다하면서 안전하고 안심되게 하는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3. 연령이나 능력 등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모든 생활자에게 이용가능하도록 제품, 건물, 공간을 디자인 하는 Universal Design 중 포장분야의 강화이다.

4. 홍수처럼 새 상품이 범람하고 있는 현급에서 Package Design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5. 종래의 연포장은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합화를 하는데 반하여 Polyloefine계, PET계, Nylon계, PS계 등의 필름 등에 기능성을 추가 복합화를 가능한 줄이고 원가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6. 연포장에 사용되는 각종필름, 알미늄박 등의 소재, 잉크·접착제·코팅제, 제판기술 및 발전된 컨버팅 기기의 기술응용과 장비를 이용 전자재료, 광학필름, 태양광전지 및 2차전지 분야의 진출로 사업영역의 확대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7. 지금까지 Moisture Barrier, Gas Barrier의 완벽한 역할을 해온 알미늄박을 Silica증착이나 Alumina증착의 완벽한 제품 출현으로 연포장 분야와 태양광전지의 소재를 대체하고 있다.

8. 소품종 대량생산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변화되면서 종래의 많은 Roll 제품이 Pouch 납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품종 소량 생산에 필요한 가공 장비의 개발이 진전되고 있다.

9. 현재 CJ제일제당, LG그룹, 삼성그룹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3자 구매방식의 태동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포장재 구입비를 절감하고 수요회사의 구매 등 관리부서의 경량화를 도모키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이를 위해서는 사용원부재료 및 가공의 기준을 설정 기준을 통과 한 인증업체의 생산품을 구매토록 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인증기준이나 인증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어 인증기준의 설정이 시급하다.

10. 선진국에서는 제품제조 업체는 제조만을 담당하고 포장과 유통은 위탁포장 회사가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설비가 없어도 신제품 개발을 가능케 하고 제조업체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SP, PTP 포장을 위시하여 소분 포장을 하는 위탁업체의 태동으로 새로운 포장산업을 창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포장산업은 시대의 필요에 따라 계속 변천해 가고 있어 우리 포장기술인은 이들 변천에 따른 대응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소속회사의 발전과 자기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포장기술인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 포장은 시대발전을 비춰주는 거울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포장산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올해에도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2000년대를 열었던 지난 10년간 우리 포장산업은 타 분야의 약진에 비해서 그리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무관심과 친환경의 역풍 탓이라고 이유를 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노력 부족이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포장은 시련을 거치면서 오히려 질적인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중요성도 더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포장은 이제 더 이상 제품의 시녀가 아니고 제품의 감독자이면서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팔리는 상품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상품을 팔리게 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본래 포장의 몫이었던 소비자 어필과 가격경쟁력에 더하여 일상생활을 더욱 편안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스마트 패키징,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배려포장 등이 날로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은 시대발전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술발전 주기가 날로 빨라지는 시대 상황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심각히 따져봐야 합니다. 포장학회는 1994년 창립 이래 응용과학의 한 부분으로서 포장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학협력에는 별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저변을 늘리는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겸허한 반성을 통해서, 새해에는 포장산업계와 좀 더 스킨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펼칠 것입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여러 대학에 포장학과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포장산업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도 포장학회의 노력을 지켜봐주시고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신묘년에는 빠르고 높게 뛰는 토끼처럼 우리 포장산업계도 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포장인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장이 마련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



이명훈

한국포장학회 회장

# 포장 세미나 개최 및 환경포장 관련 정책 제안할 터



김기태

(사)한국포장기술사회 회장

클린턴이 말한 2000년대 두 번째 10년이 밝아왔습니다.

해마다 그랬는지는 몰라도 지난해에는 유난히도 불안한 소식도 희망적인 소식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연평도 사건으로 모두 문혀버린 것 같지만, 연초부터 이상화, 모태범 등 우리 젊은이들의 활약으로 힘차게 출발하여 G20 정상회의까지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모두가 앞을 향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는데, 우리 포장업계도 같이 발전하고 있는지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 포장기술사회 회장이랍시고, 간담회니, 평가회니 해서 여러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뻔뻔하게 공무원들에게 우리 포장업계를 도와주십사는 부탁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우리나라 포장산업 규모는 얼마나 되지요?”

“포장폐기물 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포장업계 종사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은 몇 개나 가능합니까?”

이런 되물음을 받을 때마다 자신 있게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머리를 긁적이며, 우리나라는 포장관련 대표기관이 없어서...”라고 변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포장전시회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 포장기계도 품질을 인정받아 수출이 잘되고 있으며, 포장산업 규모도 20조원 안팎일 것이라고는 하는데,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부나 NGO들은 포장이 도시 쓰레기 발생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얼마나 줄이면 될 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새해부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당당하게 숫자로 말할 수 있는 시작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저를 비롯한 우리 포장기술사회 임원들이 공·사적인 여러 가지 일로 인해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포장관련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미나는 물론, 환경포장 관련 정책제안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보고자 하므로, 포장기술사회 회원뿐만 아니라 포장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포장계 독자 여러분, 그리고 포장인 여러분, 신묘년에는 신묘한 일이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

## 패키징 성장위한 지속적 변화 필요

2010년 주요 기업의 경영 화두는 경제위기에 따른 새로운 시장 개척과 글로벌 경영을 통한 성장으로 활발한 투자와 신기술 개발이었으며, 패키징은 경제위기라는 가장 큰 중요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패키징의 주요 트렌드는 Economy(경제성),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Private Branding(자체브랜드화), Value Packaging(가치패키징), Safety(안전성)이었습니다.

Economy는 소비자 구매 행동의 변화로 제조업체에서는 패키징의 사이즈와 무게를 감소하여 원가절감을 하였고 소비자는 자원절약을 친환경으로 인식하여 이러한 제품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Sustainability 즉, 지속가능성과 연관이 되어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규정과 관리에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기업에서는 지속가능성 제품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을 만족시키기위하여 제조업과 유통물류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패키징을 선보이게 되었으며 이는 Private Branding(자체브랜드화)로 연결됩니다.

선두그룹의 일류브랜드를 대체할만한 요인이 충족된 자체브랜드는 Value Packaging(가치창출)으로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제품의 오염, 변조, 오류 등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Safety(안전성)가 확보되어야 진정한 패키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사회적 요구에도 우리 패키징산업은 올 한해도 잘 대응하고 견디어 주었으며, 우리 패키징기술센터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패키징 산업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패키징 산업은 패키징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편리성, 스마트, 디지털, 감성, 차별성 등이 반영된 시장이 주도를 할 전망입니다.

패키징의 성장 가속화와 성공을 위해서는 조직과 리더십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패키징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발판이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벽찬 기대와 함께 패키징의 발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안고 갈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묘(辛卯)년 한 해 동안 더 많은 건강과 행복,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심진기

패키징기술지원센터 센터장



##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가속화 위해 노력할 터



조 봉 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2011년 희망의 기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난공불락의 토요타성이 힘없이 무너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는가 하면, 칠레광산붕괴와 중앙아메리카 아이티지진 등의 사건이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고, 우리나라도 천안함 사건에 이어 연평도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극도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위기와 선진국의 경기둔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쳤지만, 다행히도 우리 경제가 매우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여 6%대의 성장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가치가 상승되었고, 세계경제의 리더그룹으로 자리매김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이며, 위기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휘하는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 준 것입니다.

우리 플라스틱업계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합성수지가격 예측 불확실성, 플라스틱제품의 대체재 전환 및 일회용품 사용금지 등 국내외의 악재가 많았으나, 플라스틱업계 종사자 모두의 피나는 노력으로 2010년 10월까지 플라스틱제품 수출이 50억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36억1200만 달러보다 약 39% 증가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대체적으로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대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난해 6%를 기준으로 4%대 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감 경기는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연합회는 이를 발판삼아 올해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가속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중소 플라스틱제조업체가 글로벌 중견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있도록 폭넓은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힘을 보탬 것입니다.

합성수지가격 불확실성 예측과 할당관세 무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발적 협약을 통한 폐기물부담금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플라스틱업계 맞춤형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인력구조고도화 실현에 일익을 담당하고, 우량 중소기업 구인 DB구축사업을 통해 우수인력이 플라스틱제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의 저탄소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플라스틱제품의 탄소저감을 위한 신기술 및 연구개발동향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해외시장 개척과 교류증진에도 힘써 2011년에도 우리 플라스틱업계가 더욱 발전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플라스틱업계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플라스틱인 및 포장업계 종사자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 인쇄인 권익보호 위한 대정부 활동 주력

존경하는 포장 및 인쇄인 가족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건강하심과 영위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국내 경기는 장기적인 침체와 급속한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물량감소와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또한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어 일부 조합이 해산되기도 하였기에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합회에서는 소액수의계약 조합 추천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5천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 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물품중 협동조합이 공공구매정보망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지자체수의계약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행안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지난해 10월말 실현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조합에서 이러한 조치를 활용하여 지자체와 유대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조합의 경영 안정을 기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포장 및 인쇄인 여러분!

요즘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키운다는 방침 아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추진대책으로 불이익을 우려한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방안과 민간 주도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대기업의 진입을 억제하고 대기업이 갖고 있는 기존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연합회에서는 올해 이 같은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인쇄인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정부 활동과 인쇄인 스스로 무모한 과당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원가의식을 제고하여 적정이윤을 확보함으로써 적기에 신기술 설비투자에 따른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인쇄업계가 희망이 약동하는 한해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포장 및 인쇄인 여러분의 맥내에 건강과 만복이 깃들기를 빕니다. ☞



이 충 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수요업체와 상생의 정신으로 협업화



김 창 범

(사)한국PET용기협회 회장

다사다난 했던 경인년이 저물어가고 순결함과 평화로움을 준다는 토끼해 신묘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2010년을 되돌아보면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세종시, 4대강 문제, 연평도 도발 등 정치적, 사회적 혼돈으로 어느 때 보다도 힘든 한 해였지만 PET 용기는 생수시장의 꾸준한 급성장,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탁주용기의 수요증가 또한 그동안 정체에서 벗어나 힘찬 도약을 하고 있는 탄산음료시장과 스포츠음료시장의 선방으로 좋은 과실을 얻은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볍고, 투명하고, 깨지지 않고, 인체에 전혀 지장이 없는 환경친화적인 PET용기의 특징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PET 성형업계의 피나는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여러분과 식음료 업계의 꾸준한 사랑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년 해가 바뀔 때 마다 새로운 희망과 함께 올해는 무엇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아무래도 금년의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사회가 좀더 안정되고, 가정이 편안하고, 개인 모두가 소망하는 일이 성취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업계는 급변하는 시장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품질개선 및 원가절감은 물론 수요업체와 상생의 정신으로 협업화하여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 신규수요 창출 및 새로운 시장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PET병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모양의 용기로 국민건강과 식음료 문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장용기 중에서 가장 탁월한 PET용기가 우리생활 주위 어디에서나 더욱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우리 PET 성형업계는 소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신묘년 토끼띠 해를 맞이하여 포장업계의 무궁한 발전과 PET용기와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 내실화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산업 도약 기대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환율불안, 원자재가 상승, 새로운 유럽발 금융위기, 북한 리스크 고조 등 여러 불안요소가 여전히 기업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2011년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우리나라가 대내외의 여러 악재를 뚫고 약 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듯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올 한해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은 21세기의 또다른 10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오늘날의 10년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재 역시 이를 생산·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많은 산업분야가 연계되어 있어, 상호 공존을 위해서는 서로간의 정보 교환과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변화를 예측하고 앞서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입 10년을 기점으로 EPR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지난해에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의 일부 확대나 분리배출표시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앞으로도 그동안의 문제점 보완이나 재활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정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재활용공제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전달, 그리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회원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회의 노력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슬기롭게 현재의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김 석 수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회장

## 플라스틱 친환경성 연구 활발히 진행되기를...



석 용 찬

(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회장

다사다난 했던 경인년 한해가 저물고, 희망찬 2011년 신묘년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포장산업 관계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채 끝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기대와 우려 속에 조심스럽게 출발한 지난 한 해, 연초부터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 발로 위기와 긴장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성공적인 G20 개최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 극복과 함께 경기 회복의 기대와 희망의 빛이 보이는 시점에서 새해를 맞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영민한 토끼처럼 지혜롭게 대처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순탄하게 풀려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플라스틱은 생활용품, 포장재료 등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재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자동차·항공기의 경량화에 의한 연료 소비효율의 향상, 식품용기 포장 내용물의 장기 보존, 에너지 절약 기기와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에 기여하는 것에 따른 에너지 자원 절감 및 그 결과로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등의 새로운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그 활용도가 높아지는 소재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 플라스틱 제품은 타 소재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낮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왜곡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EU 27개국의 플라스틱(원료 제조) 사업자 단체인 "Plastics Europe"은 2009년 12월에 'Plastics Contribution to Climate Protection'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이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소재로 대체되었을 경우 온실 가스는 61% 이상, 에너지 소비량은 57%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플라스틱이 폭넓은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결과와 함께 플라스틱은 자원 효율의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온실가스와 플라스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지만 향후 이러한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플라스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부분 해소되어 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렇듯 플라스틱의 친환경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플라스틱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신묘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

## ‘인쇄문화산업 5개년 진흥계획’ 마련에 주력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장수의 의미를 담고 있는 토끼의 해를 맞아 인쇄인 및 포장인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지난 2010년은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습니다. G20 개최와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세로 국내 경기가 다소나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던 차에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우리 경제는 또 다시 위기국면으로 빠져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인쇄인들의 구심체인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는 지난해에도 국고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 15곳에서 인쇄문화전시회와 국제인쇄산업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인쇄공용 서체인 바른돋움체를 개발하고, 인력양성 사업과 편집교정사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한중일 인쇄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포럼, 수출촉진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지난해 추진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쇄문화산업 5개년 진흥계획’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업계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인쇄문화산업 5개년 진흥계획’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인쇄문화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5개년 계획에는 △ 중장기 인쇄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법 개정 △ 인쇄중주국에 걸맞는 세계인쇄문화박물관 건립 △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세계인쇄대백과사전 발간 △ 인쇄업계의 경영안정 및 시설현대화를 위한 인쇄진흥재단 설립 △ 수출 증대를 위한 인쇄물수출지원센터 설립 △ 서울 중구지역의 인쇄진흥지구 및 인쇄산업단지 조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인쇄 인증제 도입, 가칭 그래픽아츠디자이너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인쇄백서 및 근현대인쇄문화사 발간, 인쇄기자재 및 인쇄 공용서체 개발, 국제인쇄산업전시회 및 인쇄문화순회전시회 활성화 등의 사업 등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5개년 계획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인쇄 및 관련업계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장학기금을 기탁 받아 2011년부터 장학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미 1억원이 기탁되었고 앞으로 뜻있는 분들의 정성을 모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고 험난한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애써 오신 인쇄인과 포장인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위로와 경의를 표하며 신묘년 새해에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 위기를 기회로 재도약 기대



이 일 해

한국포장기계협회 회장

격동의 2010년을 뒤로하고 온갖 기대와 염려속에 2011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장밋빛 희망만을 가득안고 시작하고 싶지만 그럴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 해, 북한은 핵 위협과 장사포 공격으로 우리를 긴장시키더니, 급기야 천안함 사태에 이어 연평도 포격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상최대의 무역 흑자에 주가는 안전하게 상승했습니다.

우리는 6.25의 잿더미 속에서 60년 만에 민주화를 이후로 세계가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및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경의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며 저마다 한국을 모델로 삼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인은 부지런하고 높은 교육열 때문에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원인을 더하고 싶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입니다. 한국인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족관의 상어가 물고기를 끊임없이 긴장시키고 급기야 수족관의 물고기들을 활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 줍니다. 북측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북한의 위협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능력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이롭게 여깁니다. 막강한 아랍의 세력 속에 굳건하게 나라를 지키며 세계 속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탁월하며 독특한 민족성을 가진 한국인을 경이롭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한국인은 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세계 역사 속에서 한층 더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을 배우려는 많은 나라들은 한국인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지 바라보며 용원을 보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장인 여러분!

많은 위기 속에는 반드시 많은 기회가 숨어 있음을 기억합시다.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언젠가는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될 것입니다. ☐

## 공업포장업계 통계 구축되기를...

2010년 한 해는 매우 바쁘고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당 협회가 2007년 처음으로 한, 중, 일 3국간 공업포장기술 교류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된 3국의 교류회를 서울에서 다시 개최하여 앞으로 이 교류회가 정례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준비를 위하여 중국, 일본을 오가며 3국의 공업포장 업계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을 찾아내고 2008년의 틀상자의 3국 표준 통일화에 이어 당 협회의 제안에 의하여 수송포장가이드라인의 제정이란 주제를 정하여 진행시키 나가기로 하고 3국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회의 3국 전문위원회를 개최 하며 수송포장가이드라인(PGTP)의 제정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공업포장 업계와 수송업계(하역, 보관 포함)는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포장 시에는 운송, 보관, 하역 과정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각 유통 과정의 모든 작업도 포장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포장 화물의 운송 중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화물 손실의 최소화는 수출 상품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사업이 국가의 지원없이 협회의 의욕만으로는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는 몇몇 회원사의 자금 지원으로 시작한 하였지만 앞으로 18개월 정도 소요될 이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 협회는 2011년에 PGTP의 제정 사업 외에 교육 프로그램의 교재 개발과 원자재의 공동 구매 사업을 활성화하여 회원사의 기술력 향상과 품질 향상 및 경영 환경 개선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당 협회가 여러 번 계획하여 추진하였지만 완성하지 못하였던 공업포장업 통계 조사 사업이 이번에 패키징기술센터에서 패키징산업 통계 조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이 사업을 통해 공업포장업계의 통계가 조속히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패키징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패키징인 여러분!

2011년 신묘년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패키징 산업이 번창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



이 광 철

한국공업포장협회 회장



##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지원



진 인 주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회장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바이오플라스틱 산업계 관계자, 그리고 패키징 업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 어려움 속에서 G20 정상회의를 훌륭하게 치러냄으로써, 대외적으로는 물론이고 대내적으로도 우리의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해로 기억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안보태세를 돌이켜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녹색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국내의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은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큰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석유 화학 관련 기업들의 바이오플라스틱 연구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플라스틱 가공업체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진전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PLA 메이커가 제2공장 부지를 동남아시아로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는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에서도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산업계와 힘을 합쳐,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협회에서는 녹색산업에서 중요한 요소인 탄소 배출 저감효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품 로고 제정을 준비해 왔으며, 새해에는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로고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이 저탄소 제품임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생분해성이 강조되는 제품들에 적용할 수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로고의 시행도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플라스틱, 특히 식물유래 자원으로부터 제조되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는 식물자원의 확보는 물론이고 발효공정의 최적화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 녹색 소재로서의 가치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강력한 정책적 지원, 활발한 연구개발, 그리고 산업계의 부단한 제품 및 시장 개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플라스틱의 최근 개발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워크숍도 내실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신묘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고, 가정과 직장에 늘 건강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 재활용목표 78.2% 달성에 주력

포장산업에 종사하시는 업계 관계자 분들 또한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 하리라 기대하며, 2011년 신묘년(辛卯年)에도 “월간 포장계” 독자 분들께 희망 을 키워나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새해에도 경제불안정 등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지만, 항상 어려움을 슬 기롭게 극복한 경험을 살려 재도약을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스티로폴은 98%의 공기와 2%의 합성수지로 되어 있어서 가볍고, 충격에 강 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해 주고 방수성이 있어 가전완충재, 농수축산물상자 및 건 축용 단열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피가 크고 사용 후 처리 가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996년 스티로폴이 재활용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21%에 머무르던 스티로폴 재활용률이 2009년 72.1%에 이어 2010년에는 73%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 하고 있습니다.

재생원료 및 제품 수출 689억 원 등의 부수적 성과와 함께 회수재활용률이 세계 2위의 수준까지 끌어 올렸으며, 지난해 소형가전, 사무기기, 제품에 대한 사용규제 폐기에 이어 2010년 말에도 인형, 완구류 및 종합제품 포장재의 EPS 포장재 사용규제가 폐기되어 2011년 1월부터는 EPS 포장재의 모든 용도에 서의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스티로폴의 사용과 재활용이 국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정착했다 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스티로폴 재활용 관련사업의 자발적 추진과 스티로폴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보급을 목적으로 생산자 들이 1993년 설립한 당 협회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통한 장기재활용목표 78.2% 달성과 재활용제품 의 해외수출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내 포장산업분야 언론의 최고 전문지인 “월간 포장계”는 새해에도 포장관련 기술 및 경영, 국내외의 최신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 역할을 기대하며, 신묘년(辛卯年) 새해에도 포장업계에 종사 하시는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오 장 수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회장

##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조성 필요



이 철 순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지난간 2010년은 년초부터 몰아친 국제 철강석값 폭등과 함께 원료 수급계약이 분기별로 바뀌고 국내 철강제품 또한 동반 급등하여 분기 마다 원자재가격이 인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금속캔을 생산하는 우리 제관(製罐)업계를 비롯한 많은 철강재 수요기업들에게는 시련으로 점철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는 국내 철강재 수요산업에 건잡을수 없는 혼란을 야기했고 철강제품을 원자재로 하는 중소기업에는 기업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납품단가 반영이 우적 지위를 악용한 일부 대기업의 거부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계기로 납품단가 반영문제가 사회적문제로 공론화됐고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국가경제발전의 과제로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도 그 시급성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 등을 포함한 상생법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업계에 당장 절실한 것은 소재 대기업에서 원자재 가격 인상 횡수를 년1회 로 최소화해 주는 것입니다.

인상횟수가 최소화되지 않으면 1년 내내 납품단가 반영에만 시달려야 하는 고통은 차치하고서라도 잦은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요업 체의 불만고조로 금속용기 적용 회피는 물론 타재질로 용기를 전환하는, 결과적으로 스틸을 원자재로 한 100여년 역사의 국내 제관산업이 서서히 와해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은 상황과 여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타포장산업과 비슷하리라 보며, 아무쪼록 대 · 중소기업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하루 빨리 이뤄졌으면 합니다.

2011년 신묘년을 맞이하여 포장계 가족여러분과 포장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올해로 창립 20년이 되는 한국포장협회 발전 또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독보적 기술개발 통한 발전 기대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포장인 및 포장관련 업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불어 지난 한해 포장산업계의 발전과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포장인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년 한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국내경제의 회복과 한미 FTA의 추가협상과 타결이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내 내수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공정경쟁이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빨간불은 여전히 켜져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개방되고 높은 기술력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더욱 가속화 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 기업 스스로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역발상 경영과 준비된 시나리오 경영으로 업종의 특화된 비전과 정신으로 앞서나갈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계의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적인 차원의 상생협력 전략을 마련하여 모두가 화합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포장인 및 포장관련업계 여러분!

2011년 신묘년에는 새로운 시장과 환경들로 더욱 치열한 생존경쟁이 펼쳐질 것입니다. 빠르고 다양하게 발전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대처하고 선도하여 업계의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큰 비전으로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고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포장인과 포장업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욱 회장님을 비롯한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박 정 일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골판지포장산업 지속성장 위해 조합 능동적으로 대응할 터



오진수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다사다난한 경인년을 보내며

세계적인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새로운 기운을 기대하면서 출발한 庚寅年을 되돌아보니 사회적으로 너무도 많은 일들이 부침했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라는 북의 포격공격과 천안함 침몰 등으로 얼룩진 남북관계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표현 등이 실제였음을 느끼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순항하는 시장경제는 당초 생각했던 이상의 탄탄한 반석위에 우리 사회가 놓여 있음을 실감하기도 했다.

우리 골판지포장업계 또한 나라 전체가 겪은 고충 못지않은 우여곡절이 주위를 감쌌지만 골판지상자 가격 연동반영을 실현했던, 우울함과 기대를 공유한 한해였다.

## 골판지포장업계 연대감 확인

신년 초에 지구의 정반대편에 있는 펄프 최대 수입국인 칠레에서의 강진은 제지산업 전반에 원료 공급 부족상황을 초래하게 되었고, 곧이어 골판지원지 가격 폭등을 연출하게 되었다. 골판지원지 가격 인상으로 촉발된 골판지상자가격 연동 문제가 전경제계 전반에 걸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과제로 떠오르면서 골판지포장산업은 유난히 언론 지면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궁극에 대·중소기업 상생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자리 잡게 된 한해이기도 했다.

골판지원지가격은 지난 2009년 9월 30%의 가격인상과 지난해 4월 20%이상의 가격인상이 연쇄적으로 이어졌었다. 그러나 이를 원료로 만들어지는 골판지상자가격은 수요 대기업자의 난색으로 연동 반영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납품중단 불사와 불공정 부당거래라는 절박한 심경을 호소함으로써 골판지포장업계의 강한 연대감을 확인하게 되었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인상 수준에서 다소 이렇지만 현실화시킬 수 있었다.

## 동반성장 전에 상생이 필요

아울러 이를 계기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소기업 정책 당국자의 판단을 이끌어 상생법과 하도급법의 현실에 부합한 개정안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넘어 동반성장의 길을 가야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상생의 정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생법의 개정 처리는 진일보한 정책이라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 개정안은 말로만 무성하게 나돌면서 기대 수준을 높여 왔지만, 이쉽게 해를 넘기고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중소 하도급기업이 수요(원청)대기업의 부당거래에 대해 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하청기업의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당연히 납품단가 반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거래거절 또는 거래선 변경 등의 압박수단은 스스로 연동반영을 철회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풀어보자는 취지로 마련한 틀이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다.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을 상대로 이런저런 요구를 할 수 없다면, 제3자인 협동조합이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협상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어서 실효성 분야에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렇게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 조합의 대응력 강화 계획

우리 골판지포장업계는 골판지원지업계의 규모의 경쟁과 일관기업화라는 구조조정의 끝자락에서 같은 공간에 위치해 있으며, 이로인해 시장은 글로벌화가 작동되면서 국제적인 수급 및 가격 동향이 민감하게 반영되는 환경을 안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원료 수급 문제가 즉각 영향을 미치고, 지구 정반대편의 이변이 하루를 넘지 않고 어김없이 영향을 주는 등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시장 환경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경영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페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우리 조합은 이러한 불가측적인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성장해야 하는 골판지포장산업의 전진과 발전을 위해 상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처하려 한다.

### 辛卯年の 날이 밝았다.

토끼는 어두운 밤에서도 방아를 찧을 수 있다고 해서 토끼눈을 明視라고도 한다. 불확실한 경제 현실과 구조조정의 끝자락에 선 골판지포장업계뿐 아니라, 유사한 경영환경을 갖는 타 포장소재 업계, 포장산업분야의 모든 분들이 토끼의 눈처럼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멀리 내다보는 혜안을 갖기를 辛卯年の 아침에 진심으로 기원한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임직원 일동**